

예암 중정 수행 이력

- 1920년 3월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을 덕진리에서 출생. 속명은 남영
- 1945년 17세에 일본유학
- 1946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법명 성관
- 1947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 시작
-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지
- 1951년 인곡 은사스님으로부터 "해암당" 이라 법호 받음
- 1957년 오대산 사고암 토굴에서 용맹정진 중에 심경을 계승으로 율음
- 1967년 해인총림 유나
- 1970년 해인사 주지
- 1979년 해인총림 선원에서 90년(71세까지) 12년간 안거
- 1985년 해인총림 부방장
- 1987년 조계종 원로의원
- 19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1993-96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
- 1994-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1999년 5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



△해인총림 선원에서 죽비를 들고 후학들을 경책 하였던 해암 스님은 선방 남자들이 수행하는데 표상이 되었다.

'평생 청정한 계행' 후학들에 師表

조계종 예암 중정 행장

12월 31일 원적이든 해암당 성관대 종사는 50년간 두타행을 몸으로 실천하고, 장좌불와 수행을 해온 조계종단의 대표적 선승이다. 스님은 특히 '종현종법 수호'라는 원칙론을 중시하며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손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시켰다.

스님은 선원대중들에게 항상 "공부하다 죽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인연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주지소임 말지 말라" "한발의 옷과 하나의 밥그릇으로 청빈하게 살라"고 가르치며 남자로서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스님의 선방생활 기준은 수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해암 중정스님은 장성을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구약과 신약, 유교의 사서삼경, 불교의 조사기록 등을 두루 섭렵하며 동양철학을 공부한 스님은 25세 되던 해 일본의 고승 전집을 읽다가 <일월선사 모친의 유언서>에 감화를 받고, 또한 <선관책진>을 탐독하다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며, 항상 큰 광명을 놓도다"라는 대목에서 크게 발심하여 일본 임제종의 유나(維那)로 있던 백암사 방장 서옹스님을 뵈고 <금강경> 한편과 <참선>을 하라'는 말씀을 얻은 뒤 출가를 결심하

고 즉시 귀국했다

스님은 46년(27세) 초여름,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출가하여 출가일로부터 50년간 일일일식과 장좌불와를 하며 용맹정진 하였다.

초가를 무렵, 공양주를 계속하며 행자로서 당시 가야총림의 조실인 효봉스님을 찾아 뵈고 "無"자 화두를 곁탁받아 생사를 뛰어넘는 용맹정진을 계속했다. 백련암 뒷편 환적대로 올라간 스님은 바위굴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장좌불와하며 육일 동안 삼매에 들어 단식 용맹정진하였다.

46년 늦가을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의 상좌로 들어가게 된 일화는 아직도 불가에서 흥미로운 얘기로 전해지고 있다. 인곡 선사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해암 스님은 '아-악'이라고 일갈했다. 인곡 선사가 다시 '네 고향이 어디냐' 하자, 해암 스님은 즉시 손가락으로 허공에다 원을 그렸다.

이에 인곡 선사는 '우리 집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이웃집 땅이 배탈났다. 천하의 명의를 불러서 땅의 병을 고쳐달라 했더니 아랫집 돼지의 똥적다리에 똥을 똥다. 이 이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해암 스님은 주먹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인곡 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해암 스님을 상좌로 받았다.

그러하여, 스님은 10월 15일(음)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해암 스님은 금오·효봉·경봉 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로부터 남다른 종애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큰스님들에게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해암이는 조실을 가르치려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해암 스님은 출가이후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오대산 상원사와 오대, 화양산 봉암사, 금정산 범어사, 설악산 오세암, 태백산 등암,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지리산 상무주암과 칠불암, 조계산 송광사 선원

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계승을 물었다.

迷則生滅心(미즉생멸심)이요, 悟來眞如性(오래진여성)이라. 迷悟俱打了(미오구타요)하니, 日出乾坤明(일출건곤명)이로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방신이네 미혹과 깨달음을 모두 쳐 부수니, 해가 돌아 하늘과 땅이 밝아다

스님은 재가불자 지도에도 혼신의

이 수습되지 않고 방장 스님과 주지의 사퇴로 확대되었다. 이에 총림대중은 쇠관에서 3년 결사중인 해암스님에게 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해암스님은 8월까지 5개월간 주지직을 수행하여 사태를 해결한후, 바로 사임하고 문경 봉암사 백련암으로 들어가 이듬해 여름 안거까지 정진하였다.

85년에는 해인총림 부방장에 추대되어 총림의 발전과 총림대중의 용맹정진 기풍정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94년 4월,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어 조계종 개혁불사시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개혁종단을 탄생케 하고 그 이후에도 종단의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98년 11월, 조계종 종단사태에서도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종현종법 준수'의 기치를 높이 천명하여 사태가 합법적으로 해결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장좌불와, 일일일식 등 철저한 두타고행으로 수행 정진한 해암 스님은 99년 4월 2일 종정추대회의에서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된 뒤에 "우리 종단이 혼란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막대한 결과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엄정하게 지켜서 승가의 본분을 다하지는 의미에서 '지계정정(持戒清淨)', 종단의 바른 기풍을 드러내자는 '종풍선양(宗風宣揚)',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자는 '전법도생(傳法渡生)'을 당부한다"고 천명했다.

70년 4월, 해인총림 쇠관에서 결사 안거 중에 발생한 소위 "구들장 사건"

장좌불와·1일1식 '두타고행 철저' '안으로 정진하고 밖으로 남 도와라'

등 제방선원에서 당대 선지식인 한암, 효봉, 동산, 경봉, 전강 선사를 모시고 45 하안거를 성안했다.

57년 초겨울 해암 스님은 "공부하다 죽으리라" 결심하고 오대산 사고암(영감사) 토굴에 들어갔다. 영하 20℃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에도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오직 잔나무 생일만을 따먹으면서 초인적인 그행정진을 하였다. 몇 달이 지나자 통편이 되지 않아 단식정진을 반복하고 나서 하루에 잣알과 생콩 10알씩을 먹으며 용맹정진 하였다. 해암 스님은 이 때에 수마를 완전히 항복받아 4개월 동안 한 순간도 혼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면이란 본래 없는 것임을 확연히 체

력을 다했다.

81년 원당암에 재가불자 선원을 개설하여 매년 하·동안거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월야 용맹정진 법회를 21년간 주관하였다.

96년에는 달마선원(민선원, 108명)을 신축하여 이 해 가을부터는 원당암에 주석하며 매 안거마다 100여 안거대중과 200여 일주일 용맹정진 대중 그리고, 매월 500여 토요 월야법회 대중에 참선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선의 대중화, 생활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스님은 해인사와 종단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70년 4월, 해인총림 쇠관에서 결사 안거 중에 발생한 소위 "구들장 사건"



△해암 스님이 98년 종단사태 당시 조계종 승려대회에서 종현종법수호법어를 내리고 있다.

분규 등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개혁의 길' 열어

종단 안정 이끈 해암 스님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은 조계종 종풍을 세운 것은 물론 폭력으로 일목지고 종권 다툼으로 분열된 종단을 법력(法力)으로 고비를 넘기게 하고, 종단안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47년 성취 우봉 자운 도우 법전 일도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들어 참수행법을 빼대로 각종 불교 예식과 전법을 세워 조계종풍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94년 조계종 개혁불사 때는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개혁과 스님들의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불교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개혁불사 때, 서암 전 종정스님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절친한 도반임에도 사사로운 정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을 정도로 해암을 갖춘 큰 스님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98년 11월 조계종 종단사태 때는 '누구든 종현종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종단을 이끌었고 사태를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앞장섰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실천적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산에서 내려와 종단을 바로 세우고 안정시킨 해암스님. 원력과 소신,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비 역할을 해온 것은 스님의 철저한 수행력이 그 바탕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금강불교대학 2546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3. 원서교부처						
학과	지역(기수)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 전					
불교학과	기본과정	1년	의례의 수행, 불교입문, 원시불교, 불교문화사, 불전이해, 불교학개론	매주 월, 화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함.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종단 직책 자격 취득				
	중급과정 (서울197, 부산147)	1년	반야사상, 법화경(1)(2), 비교종교론, 천태선, 정토사상, 유식사상, 불교사개설, 기신론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기본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97), 부산(97)	1년	천태종학(1)(2), 화엄학, 일교사상, 대승불교론, 기신론, 포교방법론, 포교실습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불도 시찰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출서류	면접일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진행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기본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 사진 5매(원서용포함)	*서울 2002년 2월 20일 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3일 오후 6시	가 기간 2001년 11월 20일 ~ 2002년 2월 5일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우회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2002년 3월 1일 오전 11시 *부산 2002년 3월 9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기본과정 수료증명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서울 2002년 2월 19일 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2일 오후 6시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우회					
교법사과정	서울·부산 각 50명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 사진 5매(원서용포함) 라 본 대학 중급과정 졸업증명서 1통	*서울 2002년 2월 19일 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2일 오후 6시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우회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정태형-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중-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이봉준-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사업-동국대교수
장희욱-동국대교수	최충식-동국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김승일-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3. 원서교부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우회 02-576-6401	신촌성광사 02-336-2052	봉천동명학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성광사 02-496-3839	구로명학사 02-854-0196	인현명학사 032-873-0747	수원명학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명학사 031-745-1482	구리명학사 031-563-9364	평택명학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우회 051-808-0730	울산성광사 052-277-7100	마산명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명학사 054-277-3611	김해명학사 055-336-3585		

4. 면접장소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5. 합격자 발표

◆ 2월말 개별통보

6. 대학위치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 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